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 경영경제계열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경영경제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럽지 않겠지만 서방님이 이 지경이니 웬일이요?”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는데 설마 네가 죽겠느냐?”
 춘향이 서럽고 답답하여 멍하니 앉았다가 저희 모친을 불러 하소연을 한다.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기다린들 나와 같이 기다렸으랴.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해 주오.”
 이번에는 도련님의 손을 쥐고 유언하듯 당부한다.
 “서방님 선산밭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 춘향지묘’라고 여덟 자만 새겨 주오.”
 춘향은 어두침침한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를 생각하니 탄식과 눈물이 절로 나왔다.

[중간부분의 줄거리] 걸인 행색을 한 이몽룡은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난 다음 날, 암행어사로 출두한다.

“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 없는 자들을 풀어 줄 때,
 “저 계집은 무엇인고?”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가에서 포악을 떠 죄로 옥중에 있사옵니다.”
 “무슨 죄인고?”
 “본관 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다면서 사또 명을 거역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으로소이다.”
 “죽어 마땅할 것이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푸른 솔 푸른 대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빨리 죽여 주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황급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향단을 찾는다.
 “향단아, 서방님 혹시 어디 계신가 살펴보아라. 어젯밤 오셨을 때 천만 당부하였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도 모르시는가? 어서 찾아보아라.”
 어사또 다시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하시기에 춘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 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낭군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 있었다. 춘향은 웃음 반 울음 반으로,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읍에 가을 들어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봄바람에 핀 오얏꽃이 날 살리네. 꿈이나 생시냐? 꿈이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이렇게 즐길 적에 뒤늦게 달려온 춘향 모도 어깨춤을 추고, 구경 왔던 남원 고을 백성들도 얼씨구 덩실 춤을 추었다.

(나) 한 달이 지나자 불에 덴 병아리는 엉거주춤 서서 빼딱빼딱 걷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 불에 덴 병아리 이름이 ‘빼떼기’가 된 것이다. 빼떼기는 벌거숭이였다. 솜털이 모두 타 버려 알몸뚱이가 되었고 살갗은 푸르뎅뎅한 게 보기 흉했다. 그보다 털이 없으니 빼떼기는 추워서 항시 바들바들 떨었다. 순진이네 어머니는 어느 날, 조그만 형겅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렇게 빼떼기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조롱박 모이 그릇과 깡통 물그릇을 따로 가지고 순진이네 가족이 되어 버렸다.

빼떼기는 사람으로 치면 늦둥이다. 오래도록 병아리처럼 “삐악삐악.” 울었다. 턱주배기 새끼 수탉은 벌써 커다란 장닭이 되었다. 새벽이면 화를 치며 힘차게 “꼬끼요오!” 울었다.

“엄마, 빼떼기는 왜 아직 큰 소리로 울지 않을까? 이젠 벗이 저만큼 자라고 몸뚱이도 큰데…….”

“빼떼기는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잖니?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아주 늦은 거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순금이도, 모두 빼떼기가 다른 수탉처럼 크게 화를 치며 울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빼떼기는 덩치가 커지면서 자꾸 사립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삐뚤삐뚤, 삐딱삐딱 기어가듯이 나갔다가는 이웃집 수탉에게 쫓겨 죽는 소리를 하면서 들어오곤 했다. 머리 꼭대기에서 피가 조금 나고 등어리의 깃털이 한두 개쯤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크게 다치지 않아서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빼떼기는 건넌집 개한테 물려 한쪽 날개를 크게 다쳐 버렸다. 빼떼기는 다시 소쿠리에 담겨 방 안 윗목 구석에서 퍼드러져 있어야 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다음 날은 옅드린 채 물도 먹고 모이도 먹었다. 닳새쯤 지나자 빼떼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한쪽 날개가 처진 채 오므라들지 않았다. 결국 빼떼기의 날개는 짹짹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영원히 빼떼기는 두 날개로 화를 치며 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빼떼기가 겨우 서툴게 씨야*가 돌아가는 가락처럼 운 것은 겨울을 지내고 나서였다. 태어나서 한 돌이 되어서다. 두 날개를 엉거주춤 치켜들고 목을 늘이면서 “꼬르륵.” 하면서 울면 순진이네 식구들은 한바탕 웃었다. 빼떼기도 닭이기 때문에 서툴지만 제구실을 하게 된 것은 사람처럼 똑같이 훌륭하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이다.

*씨야 :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다) [앞부분의 줄거리] 이 소설의 중심인물은 하나코(본명 장진자)이다. 하나코는 ‘그’와 그의 동창들을 모임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기도 했다. 하나코는 언제나 차별 없이 그들을 대했다.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를 포함한 일곱 명은 함께 사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낙동강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일곱 시간 이상을 달려온 후라 이야깃거리가 고갈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아니 악을 써댔다. 돌아가면서 돼지 멍때는 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 당혹감을 숨기고 앉아, 조용히 술잔을 비우는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에게 그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노래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었다. 하나코가 그런 자리에서 노래라면 질색한다는 정도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녀는 노래 같은 것은 뺄점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담 반, 협박 반 노래를 요구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코의 이름을 외쳐댔다. 그래도 하나코는 웬 일인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또한 조금은 변했던 것 같다.

누군가가 벌떡 일어섰다. 부르나 안 부르나 내기하자면서 하나코에게 다가갔다. 동시에 하나코 건넌편의 누군가가 그녀를 일으키느라 팔을 위로 잡아당겼고 그녀의 친구는 하나코를 거머쥔 그 손을 떼어놓으려고 엉거주춤 일어섰다. [중략]

얼마 전부터 일으켜 세워진 하나코와 그녀의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뒤로 올려진 하나코의 머리는 볼품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그런 몰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모두를 감염시켜서 조금씩 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광란의 웃음이 되었다. 일종의 별을 받고 있던 하나코와 그녀의 친구에게까지 퍼져, 그녀들 또한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아주 찡그려진 표정의 웃음이었다.

하나코와 그 친구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벗어 놓은 외투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한밤중의 역겨운 찬바람을 방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방문을 열었고, 이미 그 사이 몇 배로 두터워진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누구나가, 그녀들이 인가를 찾을 때까지, 혹은 대로에 나설 때까지는 오래 어둠

속을 걸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코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임에서 사라졌다.

(라) [앞부분의 줄거리]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교수가 나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 허리에 감아 준다.

처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쪽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넣어 넣는다. 그리고

처 삼백 환!

재빨리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처 육백 환! (이어) 구백 환!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처 왜 그러세요?

교수 참 신기한 일이야.

처 삼천 환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교수 이 원고지 말이오. 다 이백 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백구십 자 칸밖에 안 들었어. 열 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한데, 이상해.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앓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 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마)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뿔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뿔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 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낀 명준은 애인인 윤애를 남긴 채 월북하지만,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현실에 실망한다. 명준은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좌절된다.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준은 간호 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다.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중립국.”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중략]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지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국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중략]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꼴호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꼴호즈 : 콜호스. 소련의 집단 농장.

(사)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별것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풋하게 느낄 무렵, 소음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중략]

생활의 짐은 한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 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트레를 늘려 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질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바)에 나타난 남북한 '설득자'의 중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제시문 (바)의 '명준'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한 단체에서 웃음과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한 후,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게임을 실시하여 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한 번 시행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시행은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 첫 번째 시행에서 선택된 공에 적힌 수를 a 라 하면, a^2 만 원의 상금이 적립된다.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꺼낸 공과 같은 숫자가 적힌 새로운 공 하나를 주머니에 추가로 넣어준다.
- 두 번째 시행 여부는 참가자가 선택한다. 두 번째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게임은 종료되며, 첫 번째 시행에서 적립된 상금만 지급된다.
- 두 번째 시행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시행에서 선택된 공에 적힌 수를 b 라 하자. 이때, $b \leq a$ 인 경우에는 b^2 만 원의 상금이 추가로 적립되어, 첫 번째 시행에서 적립된 상금과 함께 최종 지급된다. 하지만, $b > a$ 인 경우에는 상금이 추가로 적립되지 않으며, 첫 번째 시행에서 적립된 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 3] 위 게임에서 첫 번째 시행만 하는 경우의 상금의 기댓값과 두 번째 시행까지 하는 경우의 상금의 기댓값을 각각 계산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